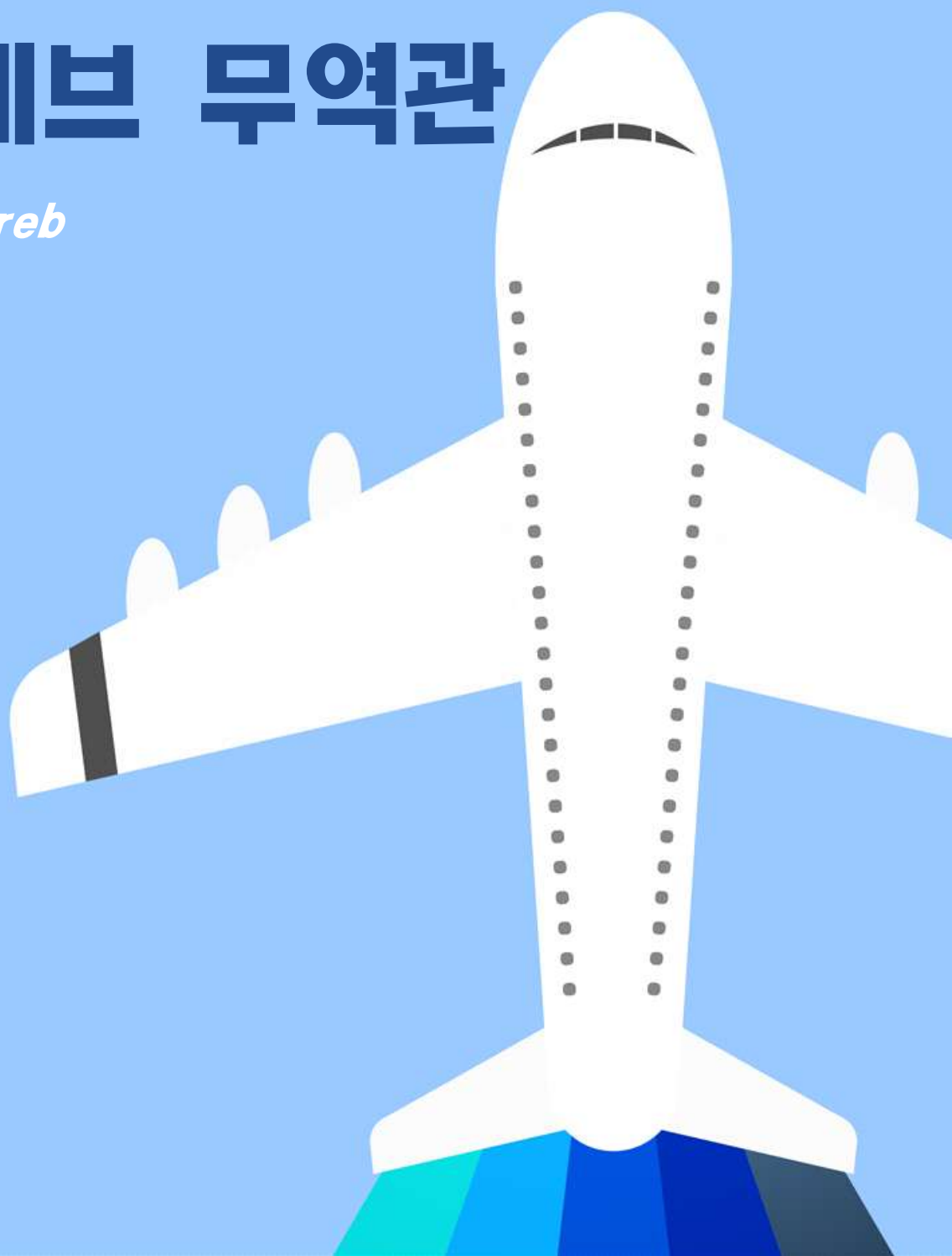


2024 해외출장 가이드

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무역관

KOTRA Zagreb



목 차

I. 크로아티아 개황	1
II. 역사 개관	2
III. 시장 특성 및 상관습	3
IV. 최근 경제 및 교역 현황	5
V. 투자환경	12
VI. 체류정보	16

I. 크로아티아 개황

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안에 인접한 관광 국가로 수도 자그레브 동쪽에 위치한 슬라보니아 평원 농업지대와 북부 및 중부의 산악지대, 그리고 아드리아 해안 지역으로 구분 가능

1991년 **舊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**을 선언한 후 세르비아계 분리주의자와 내전을 겪었으며 **1995년 미국이 전쟁에 개입, 데이턴 협정으로 종전**

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 전환 및 독립 이후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**2013년 7월 1일 EU 2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, 2020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행**
2023년 1월 1일 20번째 유로존 및 27번째 쉥겐 가입으로 경제성장 지속 기대

- 국명 : 크로아티아 공화국 (Republic of Croatia)
- 면적 : 56,594 km² (한반도의 1/4, 남한의 1/2 규모)
- 기후 : 지중해성(해안), 대륙성(내륙)
- 인구 : 약 384만 명 *연도별(백만명) : 4.05('20년), 3.88('21년), 3.85('22년)
- 수도 : 자그레브(Zagreb)
- 정치형태: 의원내각제
 - * 2024.4.17. 총선결과(잠정): 민주연합(HDZ): 61석, 사회민주(SDP): 42석, 국토운동(DP) : 14석, 브릿지(MOST): 11석, 위캔(Mozemo): 10석 등 총 151석
 - 대통령 (국가수반) : 조란 밀라노비치 (SDP)
 - 총리 (정부수반) :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(HDZ)
- 주요도시(만명) : 자그레브Zagreb(80) 스플리트Split(20) 리예카Rijeka(13)
- 민족 : 남슬라브 민족에 속하는 크로아티아인(91.6%), 세르비아인(3.2%)
- 언어 : 세르보-크로아티아어 (라틴문자 사용)
 - * 인근 세르비아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몬테네그로에서 통용
 - * 슬로베니아어, 마케도니아어와는 같은 언어 군이지만 일상적 소통은 곤란
- 종교 : 가톨릭(79.0%), 정교(3.3%), 이슬람교(1.3%)
- 건국(독립)일 : 1991.6.25. *舊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 독립
- 화폐단위 : 유로(EURO) * 2023.1.1. 유로존 가입 (기존화폐 쿠나는 23.12월말까지만 사용)

II. 역사 개관

1. 정착 및 국가 형성 (4~10세기)

- 4세기부터 서로마 제국의 혼란을 계기로 슬라브족의 이주 및 정착 시작
 - 현재 보스니아를 경계로 서쪽은 서로마제국 영향으로 가톨릭, 동쪽 지역 기타 발칸국가들은 동로마제국 영향으로 정교 국가로 발전
- 10세기 들어 최초의 크로아티아 왕국 건설

2. 외세지배 (12~20세기)

- 주변 강대국 오스트리아, 헝가리, 베네치아 등으로부터의 침략과 지배 시기
-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유럽 침략으로 이슬람이 전파되어 발칸국가 내 가톨릭, 정교, 이슬람 등 3개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
- 1918년, 1차 대전 직후 오스트리아-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분리선언
 - 세르비아 중심, ‘세르비아-크로아티아-슬로베니아 왕국’으로 통합
 - 1929년, “유고슬라비아 왕국”으로 개칭

3. 유고슬라비아 시절과 독립 (20세기 이후)

- 1945년, 2차 세계대전 이후 티토가 이끄는 ‘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’에 편입, 1980년 티토 사망 시까지 독재 체제 지속
 - 냉전붕괴 시기인 1989년, 민족주의 열풍 확산
- 1990년, 자유선거로 투즈만의 크로아티아 민주연합(HDZ)승리
 - 1991년, 독립 선언 이후 내전
 - 1995년, 데이턴(Dayton)협정으로 내전 종식, 오늘날의 평화체제 정착

Ⅲ. 시장특성 및 상관습

1. 시장특성

- **(소규모 시장)** 1991년 독립 후 舊유고연방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져 시장 규모 축소
 - 높은 소매상 마진, 부가가치세(25%)로 인해 일반 생필품이나 식품 이외에는 인근 국가 구매 성향이 높아짐
 - 한편, 舊유고연방 때부터 이어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존 에이전트가 수입시장을 주도하며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세르비아 시장까지 관할
- **(유럽의 안마당)** 舊유고연방 분리국가*와 밀접한 상권을 유지하면서 이탈리아, 독일,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와 교역 활발
 - * 7개국 : 슬로베니아, 크로아티아, 세르비아, 몬테네그로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마케도니아, 코소보
 - 공산품 대부분을 소규모 수시 오더, 신속한 딜리버리, A/S 및 마케팅 지원 가능성이 높은 인근 서유럽으로부터 수입 중, 유럽 내 현지법인, 지사, 물류창고가 있는 공급업체를 선호
 - 한국산, 일본산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 유럽 내 공장 및 중국, 동남아 등 제조국에서 직접 수입 중
- **(소비시장)** 전기차, 방산 등 일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가 존재는 하지만, 주요 산업은 관광업*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큰 시장 * 2023년 관광수입 150억 유로
 - 관광(GDP의 20~25%), 식품, 의약, 정유 등이 주요 산업
- **(대형유통망 중심)** 토종 기업인 콘쑈(Konsum)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, 뒤를 이어 외국 자본인 InterSpar, Metro, DM 등의 대형유통망이 전국 체인망을 장악
 - 일반 소비재의 경우 대형유통망을 통한 진출만이 가능한 시장
- **(소비성향)** EU 회원국 평균 소득보다 낮고 전체 경제규모가 7백억 달러 내외로 저가품 위주 구매 성향
 - 한편,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시장가격 양극화

2. 상관습과 현지 민심

- 문화적 자존심이 상당히 높아 소련 주도 하의 동구권(Eastern Bloc)이나 발칸국(Balkan Countries)보다는 중남부 유럽국(Central&Southern Europe)으로 인식 선호
 - 상거래 시, 동구권이나 발칸 국가로 지칭하는 것은 지양 필요
-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소량 주문 사례가 많아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음
 - 다품종 소량 주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거래 개시 필요
 - 현지 물류창고 활용 또는 물류 역량을 보유한 현지 에이전트 발굴 필요
- 전반적으로 신뢰를 중요시하는 편이나 업무처리/의사결정 속도가 다소 느린 관계로 거래 성사를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
 - 지급조건으로 신용장 방식 이외에도 T/T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려 필요
- 상담 시 각종 스포츠 관련 화제를 시작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
 - 단체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으로 특히 축구*는 가장 인기
 - * 월드컵 성적: 3위(1998프랑스), 준우승(2018러시아), 3위(2022카타르)
 - ** 유럽리그 대표 선수: 루카 모드리치(Luka Modric)-레알 마드리드, 미슬라브 오르시치(Mislav Orsic)-사우스햄튼, 이반 페리시치(Ivan Perisic)-토트넘

3. 한국에 대한 인지도

- 한국에 대해 높은 인지도와 국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편
 - 한국 경제발전과 민주화 경험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, 정부에서도 한국기업 투자 유치 등에 관심
 - 기아, 현대 등 약 5.7천대 판매, 2022년 점유율 각각 7.7%와 5.3%로 3위와 8위
 - 삼성 핸드폰, LG TV 등 한국산 가전제품도 판매 호조를 보이며 한국산 품질 관련 높은 인지도 형성에 기여

IV. 최근 경제 및 교역 동향

1. 개 요

□ 경제동향

-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및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중동부 유럽의 물류 허브를 추진 중
 - 1991~95년까지의 독립전쟁에 따른 제조업 쇠퇴 및 舊유고연방 분할로 인한 시장 상실로 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마이너스 성장
 - 2000년대부터 정치적 안정, 관광산업 부흥, 인프라 확충으로 2003년 이후 첫 5년간은 연평균 5%대의 높은 경제성장 기록
 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년~14년까지 마이너스 성장
 - 2015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, 2016~19년 동안에는 연 3% 성장으로 회복세
 -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8.5%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2021~22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과 관광객 회복에 힘입어 각각 13.1%, 6.2%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.
 - 2023년 1월1일부로 유로존 및 쉥겐 가입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, 외국인 투자 등 긍정적 영향으로 2023년, 2.8% 경제 성장, 2024년 3%로 전망
 - 관광산업의 완전한 회복 불구, 국제 에너지 가격과 유로화 전환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민간 소비는 다소 위축
 - 크로아티아와 같은 소규모 경제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게 반응. 2022년 11월에는 13.5%까지 높아졌고 특히 서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, 수도, 전기, 가스비용이 크게 상승
 - 한편, EU경제회복기금(RRF : Recovery and Resilience Fund)의 원활한 집행으로 경제 추가성장 동력 확보
- * 총 100억 규모의 국가경제회복계획(EU기금 보조금 58억 유로 + 대출 42억 유로)

2. 주요 경제지표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GDP(억 달러)	614	613	576	689	706	802
GDP 성장률(%)	2.8	3.4	-8.5	13.1	6.2	2.7
1인당 GDP(달러)	15,012	15,061	14,222	17,758	18,325	20,885
외환보유고(백만 달러)	15,459	16,657	17,193	21,874	25,464	-
정부부채(% of GDP)	73	74.1	81.8	81.1	74	-
실업률(%)	9.9	7.6	9.0	8.1	6.8	6.3
물가상승률(%)	1.6	0.8	-0.02	2.7	10.7	8.6
이자율	3.52	3.07	2.93	2.65	2.55	-
환율(Kuna/\$US)**	6.28	6.63	6.62	6.37	6.37	6.97

자료: IMF 및 CNB(크로아티아중앙은행)

* 2023.1.1.일부 유로존 가입으로 유로화 사용 중(Kuna는 2023년말까지만 병행)

3. 크로아티아 대외무역 동향

- 2013년 EU가입 이후, EU 자금을 활용한 제조업 강화, 외국 생산 시설 유치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해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음. 특히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에는 최대 교역액(701억 달러)를 기록함
 - 지난 5년간 에너지, 전자기기, 목재류, 플라스틱 관련 제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보다는 원자재, 원료 등이 중심
 - 수입 역시 수출 품목과 비슷한 원자재와 원료, 중간재 수입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품목은 연평균 수입액을 유지 중

<크로아티아 연도별 교역현황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분	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 1-7월
수출	금 액	17,181	17,193	21,874	25,464	13,244
	증감률	△1.3	0.1	27.2	16.4	△8.4
수입	금 액	28,161	26,831	34,522	44,618	22,729
	증감률	△0.1	△4.7	28.7	29.2	△11.5
무역수지		△10,980	△9,638	△12,648	△19,154	△9,485

* 자료 : Global Trade Atlas

- 2022년 교역 규모는 701억 달러로 68.3% 이상이 EU 회원국 간에 이루어졌고
3개 주요 교역국이 각각 10% 이상 비중을 차지
 - * 이탈리아(13.11%), 슬로베니아(11.95%), 독일(10.95%)
 - 상위 10개국 중 비유럽 국가로는 유일하게 미국이 98억달러 규모로 5.56% 비중, 중국은 16억 달러 2.21%, 한국과 일본은 각각 12억 달러, 11억 달러로 0.17%, 0.15%
 - 전체 교역액은 코로나 이후인 2021년부터 연속 두 자리 이상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으나 2022년 수입이 수출보다 1.8배 높아 최대 무역수지 적자(192억달러) 기록
- 2022년 수출액은 총 255억 달러로 전년대비 16.4% 증가
 - 2021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리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까지 정체되었던 수출에 커다란 활력. 특히, 원자재 및 원료 수출이 크게 증가

<크로아티아의 국가별 수출동향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 위	수출국	2021년		2022년		2023년 1-7월	
		수출액	증감률	수출액	증감률	수출액	증감률
1	이태리	2,839	33.1	3,097	9.1	1,505	△18.8
2	슬로베니아	2,332	32.2	2,924	25.4	1,407	△13.4
3	독일	2,676	23.0	2,882	7.7	1,530	△12.7
4	헝가리	1,789	46.5	2,841	58.8	903	△34.4
5	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	1,966	30.8	2,665	35.6	1,447	△1.3
6	세르비아	1,076	32.8	1,451	34.9	819	15.1
7	오스트리아	1,261	29.1	1,342	6.4	688	△15.1
8	프랑스	581	12.3	614	5.8	314	△13.4
9	미국	711	35.7	584	△17.8	346	△0.5
10	폴란드	451	40.3	534	18.4	298	△3.9
65	한국	18	70.4	12	△33.6	11	62.5
총 수출		21,874	27.2	25,464	16.4	13,244	△8.4

* 자료 : Global Trade Atlas

<크로아티아 10대 수출품목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목	HS Code	2020년 수출액	2021년 수출액	2022년 수출액	증감률	2023년(1월-7월) 수출액	증감률
1	광물성연료, 에너지	27	1,551	2,591	4,955	91.2	1,618	△8.4
2	전기기기, TV, VTR	85	1,599	1,999	2,105	5.3	1,223	△31.1
3	보일러, 기계류	84	1,366	1,620	1,735	7.1	1,046	1.3
4	목재류	44	908	1,225	1,435	17.2	709	△22.8
5	의약품	30	1,162	1,150	1,047	△8.9	591	△10.1
6	철강제품	73	556	734	773	5.4	429	△6.2
7	플라스틱 및 그 제품	39	514	700	771	10.4	398	△17.8
8	알루미늄과 그 제품	76	554	724	759	4.9	388	△20.7
9	자동차 및 부품	87	786	775	736	△5.1	443	6.0
10	가구, 침구류	94	524	643	690	7.3	346	△11.6
총수출			17,193	21,874	25,464	16.4	13,243	

* 자료 : Global Trade Atlas

○ 2022년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9.2% 증가한 446억 달러로 수출 증가액을 크게 상회, 192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

- 주요 수입 품목은 수출 품목과 비슷하며 2022년까지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입 증가

<크로아티아의 국가별 수입동향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 위	수입국	2021년		2022년		2023년(1-7월)	
		수입액	증감률	수입액	증감률	수입액	증감률
1	이태리	4,225	31.4	6,090	44.2	3,118	△10.0
2	독일	4,963	24.2	5,495	10.7	3,040	△4.5
3	슬로베니아	3,673	24.1	4,748	29.3	2,457	△12.1
4	미국	675	239.0	3,314	391.1	725	△54.3
5	헝가리	2,486	23.2	3,214	29.3	1,385	△28.3
6	오스트리아	2,104	22.0	2,285	8.6	1,222	△11.9
7	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	1,395	56.9	1,781	27.7	998	△5.2
8	세르비아	997	41.9	1,595	60.0	737	△8.6
9	폴란드	1,366	29.7	1,521	11.4	829	△5.4
10	네덜란드	1,290	26.2	1,468	13.8	812	△4.9
35	한국	96	29.3	107	11.1	43	△43.4
총 수입		34,522	28.7	44,618	29.2	22,729	△11.5

* 자료 : Global Trade Atlas

<크로아티아 10대 수입품목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품목	HS Code	2020년	2021년	2022년	증감률	2023년(1월-7월)	
			수입액	수입액	수입액		수입액	증감률
1	광물성연료, 에너지	27	2,711	5,179	11,395	120.5	3,949	△33.2
2	보일러, 기계류	84	2,564	2,998	3,351	11.8	1,898	△2.4
3	전기기기, TV, VTR	85	2,318	2,869	3,164	10.3	1,801	1.3
4	자동차 및 부품	87	1,782	2,261	2,585	14.3	1,845	20.3
5	의약품	30	1,786	1,790	1,744	△2.6	935	△9.0
6	플라스틱 및 그 제품	39	1,166	1,609	1,729	7.5	887	△21.1
7	철강	72	638	1,112	1,354	21.7	618	△32.7
8	철강제품	73	753	992	1,047	5.6	556	△13.1
9	의류(편물제)	61	765	894	994	11.2	541	△0.8
10	알루미늄과 그 제품	76	574	817	951	16.3	472	△25.0
총수입			26,831	34,522	44,618	29.2	22,729	-11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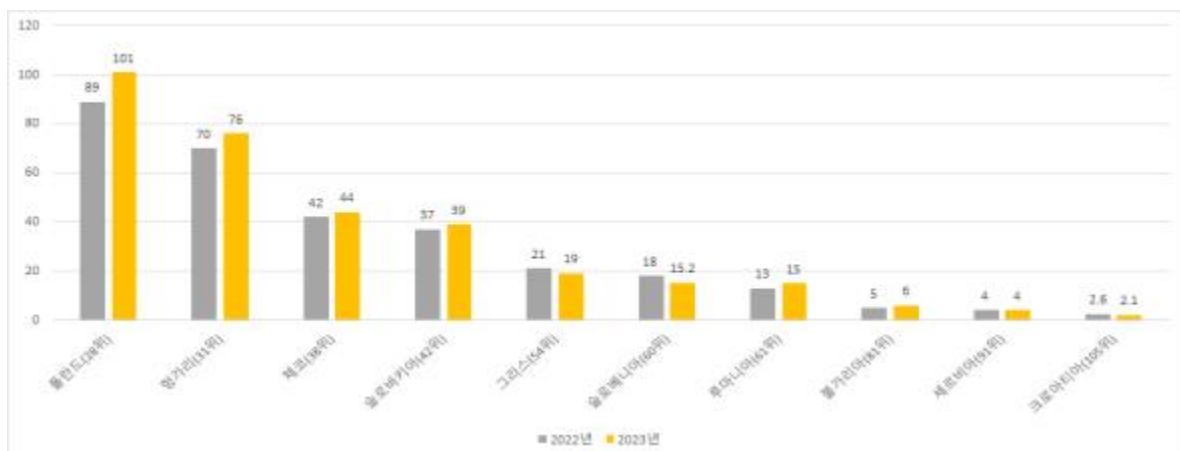
4. 한국-크로아티아 간 교역 동향

□ 최근 교역 동향 및 특징

- 양국 간 교역 규모는 '23년 기준 2.1억 달러(전년대비 23.9% 감소), 크로아티아는 우리나라의 105번째 교역국 * '22년: 2.6억 달러(105번째)
- '92년 최초 교역(수출 2백만 달러)이후 '14년까지는 1억 달러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'15년부터 연속 3년간 평균 3.7억 달러까지 확대
- '18년, 2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로 정체, '21년부터는 코로나19 회복에 힘입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작은 교역 수준에 머물러 있음

<크로아티아 이외 주변국가와의 교역 현황>

(단위: 억 달러)



<연도별 對크로아티아 수출입 동향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분		2019	2020	2021	2022	2023
수출	수출	241	97	142	141	118
	증감률	-	△59.7	46.2	△0.7	△16.6
수입	수입	27	23	34	124	94
	증감률	41.1	△12.6	45.9	265.9	△23.9
무역수지		214	74	108	17	24
총 교역량		268	120	176	265	212

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-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매년 그 품목과 규모가 일정치 않음. '23년의 상위 10개 품목 중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 진입
- 승용차, 합성수지, 기계기계류 등 일부만이 꾸준히 상위를 차지
 - 특히 승용차는 '19년에 37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역시 '18년에 1백만 달러 수출을 기록한 이후로 '23년에는 6백만 달러까지 증가
 - 기타기계류는 매년 상위 수출품목에 포함될 만큼 빠른 성장세, 용접기와 기타산업기계의 경우에는 최근 수출 증감 폭이 매우 큼
 - 한편, 의약품 수출은 '16년 한해에만 4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후로는 1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세를 보이다가 '20년부터는 평균 3백만 달러 내외로 급감

<한국의 對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목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	MTI 코드	품목명	'18	'19	'20	'21	'22년		'23년	
'22	'23						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1	1	7411	승용차	16	37	17	20	18.5	△5.2	24.9	34.5
10	2	7262	용접기	0.1	2	12	4	4.1	△4.3	13.6	230.5
11	3	7901	기타기계류	-	3	8	18	3.9	△78.1	8.9	132.4
4	4	2140	합성수지	15	13	4	5	10.4	95.6	6.6	△36.9
21	5	7414	전기자동차	1	2	4	5	1.2	△74.8	6.5	422.4
31	6	3203	타이어	2	2	0.6	1	0.8	△40.8	6.2	715.9
18	7	7513	베어링	1	3	4	5	1.6	△69.0	5.2	216.7
144	8	7112	펌프	0.1	0.2	-	-	0.006	△77.4	4.1	-
13	9	2262	의약품	167	125	2	4	1.9	△51.2	3.0	54.4
19	10	7419	기타자동차	-	-	-	-	1.4	-	1.9	34.6
6	11	7290	기타산업기계	0.2	0.7	0.3	2	8.8	446.1	1.9	△78.6
39	12	7251	건설중장비	0.4	0.6	0.5	0.9	0.6	△33.2	1.7	178.8
총수출				241	241	97	142	141	△0.7	118	△16.6

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- 크로아티아로부터의 수입은 '11년까지 2000만 ~ 3000만 달러 규모, '22년부터는 동광* 품목 수입이 급증해 1억 달러 내외를 기록 중

* 동광 수입 경로(추측) : 세르비아의 對중국 수출물량, 리에카항에서 한국 우회 수출

구리정광(HS2603)은 인근국인 세르비아 주요 광물 중 하나로 매장량 5.1백만톤 추산
 - 향후 50년간 채굴권, '18년, 중국 Zijin Mining사가 Bor구리광산을 약 3억 유로에 인수
 - '19년까지는 몬테네그로 대상으로만 수출, '20년부터 이외 국가로 수출 시작

- 동광(70%비중)을 제외하고는 1백만 달러 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9개(16%)에 불과, 꾸준한 상위 수입 품목으로는 편직제의류, 저항기, 플라스틱제품, 필름류
- 편직제의류는 '93년 양국 간 교역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'15년 1백만 달러 기록 후, '20년부터는 2백만 달러 내외 규모
- 저항기는 '08년부터 소량으로 수입, '20년부터 1백만 달러에 진입 후 '23년에는 2.6백만 달러 최대치를 기록
- 축전기와 식물재 한약재 역시 각각 '07년, '09년 이후로 꾸준히 수입되고 있는 품목으로 이중 축전기는 '10년부터 평균 1백만 달러 이상 지속
- 취미오락기구는 '16년부터 수입, '22년에는 2.2백만 달러까지 수입 규모 증가 후 '23년에는 급감
- 나머지 필름류, 주철 등은 국내 수요에 따라 간헐적 수입

<한국의 對크로아티아 주요 수입품목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MMI 코드	품목명	'18	'19	'20	'21	'22년		'23년	
						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'22	'23									
1	1	1130 동광	-	-	-	11	96.9	812.8	66.4	△31.5
-	2	7441 철도차량	-	-	0.8	1.5	-	-	3.7	-
6	3	8331 저항기	1	0.9	1	1.6	1.7	10.1	2.6	53.0
3	4	4411 편직제의류	1	2	2	3	2.4	△3.5	2.5	0.1
12	5	2262 의약품	-	-	-	0.3	0.7	117.3	1.6	112.9
7	6	3103 필름류	0.9	-	-	-	1.6	-	1.3	△19.8
5	7	3109 기타플라스틱제품	0.4	0.1	0.1	0.1	1.9	-	1.1	△41.0
17	8	52120 신발	0.5	0.5	0.3	0.6	0.4	△33.2	1.0	155.2
10	9	0156 식물성한약재	0.6	0.5	0.8	0.7	0.9	22.9	1.0	17.2
9	10	8333 축전기	1.6	1.6	1.6	1.9	1.2	△38.2	0.9	△17.1
2	-	2289 기타정밀화학원료	0.6	0.9	0.3	0.2	3	-	-	-
4	21	5142 취미오락기구	0.8	1	0.7	1	2.2	56.4	0.3	△85.5
8	-	6172 주철	-	-	-	-	1.6	-	-	-
총수입			19	27	23	34	124	265.9	94	△23.9

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V. 투자 환경

1.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

- 2022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약 34억 유로로 1993년 이래 2023년까지 누적 금액은 총 452억 유로
 - 2018년부터 연간 10억 유로를 넘어선 이후 매년 큰 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음

<최근 연도별 크로아티아 FDI 유입 현황>

(단위: 백만 유로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누계('93-'23)
투자금액	1,081	3,509	1,109	3,952	3,409	2,714	45,225
증가율(%)	146.8	224.6	-68.4	256.4	-13.7	-20.4	

* 자료 : 크로아티아 중앙은행

- 누적 기준, 주요 투자국으로는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독일, 룩셈부르크, 이탈리아 순으로 상위 10개 EU회원국 투자액이 79.9% 비중을 차지
 - 유럽 이외에는 미국(6억,17위), 러시아(3.1억,21위), 중국(2.3억,23위), UAE(1.7억 ,26위), 튀르키예(1.5억,27위), 홍콩(1.3억,28위) 등으로 이들 누적 투자액은 16억 유로 수준
 - 한국은 2019년에 현대·기아차에서 지분 투자했던 크로아티아 슈퍼 전기차량 제조사 리마츠(Rimac) 그룹에 지분투자(8천만유로)가 역대 가장 큰 규모

<크로아티아 FDI 국가별 현황>

(단위: 백만 유로)

순위	국가	금액	순위	국가	금액
1	네덜란드	6,977	8	영국	1,459
2	오스트리아	6,299	9	몰타	1,310
3	독일	4,871	10	프랑스	1,004
4	룩셈부르크	4,569	11	체코	950
5	이탈리아	4,060	23	중국	234
6	헝가리	3,210	29	한국	70
7	슬로베니아	2,370		계	45,225

* 자료: 크로아티아 중앙은행

- 주요 외국인 투자 형태는 금융과 부동산 부문이 제조업보다 크거나 비슷한 비중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음
 - 크로아티아 बैं킹의 90%가 외국인소유이며 서비스 이외 산업부문으로의 투자는 시장 규모가 작아 관심이 적음
 - 2023년 1월 1일, 유로존 및 쉥겐조약 가입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인해 향후 서비스 이외 직접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* '23.7월, EU 회원국내 외국인도 크로아티아 농작용 토지 구입 가능

<분야별 FDI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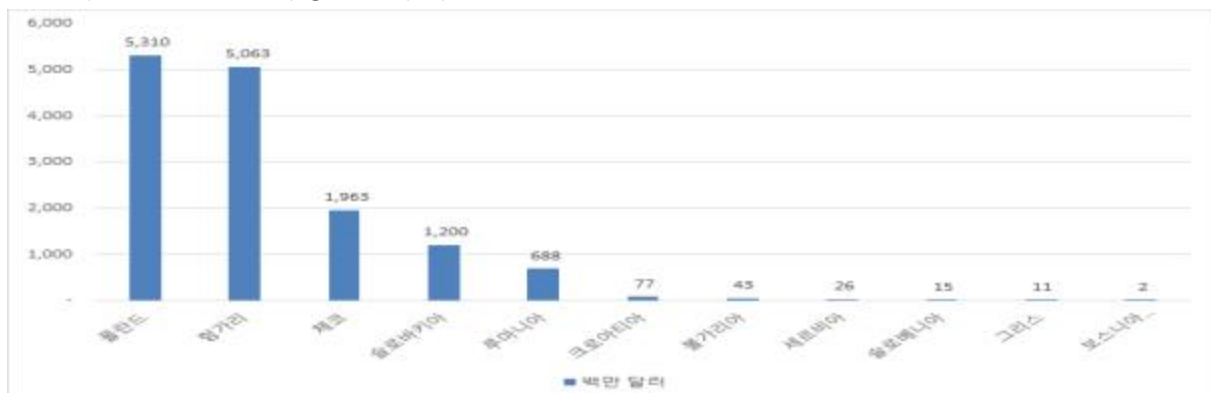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유로, %)

분야	금액	비중(%)	분야	금액	비중(%)
금융(보험)	10,284	22.7	숙박	1,903	4.2
제조(정유, 제약, 식품, 담배, 화학, 금속, 자동차, 의류, 제지, 기계, 목재 등 19개산업)	7,507	16.6	건설	1,185	2.6
부동산(투자+임대)	7,448	16.5	비즈니스, 컨설팅	1,064	2.4
유통(도매+소매, 자동차 제외)	6,166	13.6	전기, 가스, 냉난방 공급	765	1.7
ICT서비스	3,139	6.9	기타	4,783	
합계			42,553		

* 자료: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'93 - '23년간 누계

2. 한-크로아티아 투자동향

- 우리기업 투자는 '23년 누계기준, 총 77백만 달러로 舊유고연방국가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'90년대 초반부터 진출이 이루어진 인근 동유럽에 비하면 규모가 아주 작은 수준
- 총 12건의 단독 및 합작투자건 중 대기업의 현지기업 지분투자 건이 76백만 달러로 98.7% 비중을 차지



<對크로아티아 한국 투자현황>

(단위 : 개사, 천 달러)

구분	2008	2014	2019	2020	2021	2022	2023	계
순투자금액	36	436	71,206	5,418	4	42	10	77,151
신규법인	1	5	1	1	1	3	-	12

* 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

- '08년, 의약품 제조업 분야에 소규모로 진출한 이래로 '14년에는 현지 관광수요
활황에 힘입어 숙박(36.7만 달러), 음식업(3.2만 달러), 기타 임대업 (3.7만 달러) 진출
- '19년, 우리 대기업(현대·기아자동차)에서 현지 수퍼 전기차 제조사인 리마츠 그룹
(Rimac Group)에 투자(80백만 유로*, 당시 12%지분), 역대 최고치 기록
* 수출입은행 통계에는 '19-'20년 2년간 76백만 달러로 파악
- '21년~'22년, 인근 동유럽으로의 물류망 확보 차원에서 중소규모의 운송업(4개사) 진출
- '22년~'23년에 화장품 제조업으로 각각 3.9만 달러, 1만 달러 내외 소액 투자
- '23년 1월1일부 쉥겐조약 가입 이후로 물류 허브 역할이 부각, 우리 물류기업 진출이
늘어날 것으로 전망 됨

3. 투자대상지로서의 장단점

장점	단점
<p>1. 안정된 정치/사회/치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S&P 및 Fitch 안정적 국가투자 등급 BBB+유지 ○ 최근까지 정치적 소요 제로, 치안상태 우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치안 세계13위, 유럽내 5위('22, numbo) *범죄율, 폭력 지수 유럽내 최하위('20, eurosat) <p>2. 풍부한 EU 기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7년까지 EU 기금 90억 유로 확보('2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기존 기금 등을 합쳐 총 250억 유로 운용 중 ○ 합작 투자 진출 시 일부 EU 기금 활용 가능 <p>3. 유로존/셱겐 가입('23.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.4억명 유로존, 4억명의 셱겐 경제 편입 ○ 관광객 및 FDI 확대에 경제기여 기대 <p>4. 지정학적 위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로존/셱겐 가입된 국가로 구 유고연방 중 가장 동쪽(발칸 국가들의 물류 등 관문역할) ○ 주요 유럽 3시간 거리 및 핵심 내륙 해상 운송로 Rhine-Main-Danube 높은 접근성 <p>5. 양질의 노동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부분 영어 사용, 외국인 생활에 편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영어 활용도 세계 112국가 중 10위('22, EF) *인구의 95%(영어), 49%(독일), 22%(이태리) 구사 ○ 높은 노동 생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EU 평균 102 vs 108 크로아티아('21, eurosat) <p>6. 창의적 혁신 기업가 마인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니콜라 테슬라 출생국가로 넥타이, 샤프펜슬, 등 창의적 발명 DNA 보유 ○ 유니콘기업 2개사 : Infobip(글로벌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), Rimac(수퍼전기차 제조) <p>7. 한국 호감도 높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-pop/k-food/화장품 등 인기 ○ "꽃보다 누나" 등으로 '19년 40만 한국인 방문 	<p>1. 관료주의 및 부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 체류비자 연장, 6개월 이상 소요 ○ 소송 소요시간 유럽 내 최장 등 행정절차 복잡 ○ 일부 프로젝트 추진 시 프로세스 불투명 ○ 정책의 불확실성 *외국투자기업 현지 생산쿼터 충분한 협의 없이 자국기업에 할당(일본 참치양식) <p>2. 외국인 투자자 차별 규정(Foreigner Act 113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인 3인 이상 의무 고용 ○ 채용 현지인 급여를 평균 이상 지급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최저임금으로 충분한 직종에도 높은 급여 지불 ○ 외국인 고용주 현지 평균 급여 대비 1.5배 지급 <p>3. 노동 인구 감소 및 유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 인구 4백만명 미만 첫 진입 *'23년 380만명 ○ 출생자보다 사망자수가 월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'23년 출생 3.2만명 vs 사망 5.1만명 ○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심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'20-40세 인구 비중 '18년 25%→ '21년 23% ○ 젊은층 독일, 오스트리아 등 근무 선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보·헤(1)/세르비아(2)/마케도니아(3) 등에서 인력 충원 <p>4. 관광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 구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광업이 GDP 20% 이상 차지 ○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비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GDP 제조업 비중 세계평균 17% vs 크 11%(WB) <p>5. 편중된 외국인 투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 투자가 금융, 물류, 부동산에 편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누적투자기준 금융, 부동산, 유통이 전체 57% ○ 주요 투자국도 아직까지는 인근국이 대부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네덜란드, 독일오스트리아 등 EU국가가 90%이상 <p>6. 한국 생필품 가격 높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마트 1곳, 식당 2곳 ○ 대량구매는 인근 오스트리아 및 독일 주문

VI. 체류 정보

1. 주요 연락처

대 상	연 락 처	비 고
KOTRA 자그레브 무역관	TEL : (385-1) 4815-101 E-mail : kotrazag@kotra.or.kr	자그레브 내에서 전화 시에는 국가 및 지역번호 385-1 생략
한국대사관	TEL : (385-1) 482-1282	영사

- 무역관 위치 : 8층 Radnička cesta 52/VIII, 10000, Zagreb, Croatia
- 신규 오피스 단지가 밀집되고 있는 라드니치카 체스타(Radnička cesta)거리에 있으며, 자그레브공항에서 약 15km 거리로 택시, 또는 공항버스 이용 가능



○ 오시는 방법

- (택시 이용) 우버(UBER) 사용 시 약 15유로. 상기 주소 또는 그린골드 빌딩 (Green Gold)으로 얘기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음. 대부분은 영어 소통 가능. 일반 택시의 경우에는 공항 앞에서 약 30유로 내외로 이용 가능
- (버스 이용) 공항버스 이용, 자그레브 버스터미널에서 하차, 도보로 10분

※ 대사관

○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

- 주소: Ksaverska cesta 111/A-B, 10000 Zagreb, Croatia
- 전화: (385-1) 482-1282
- Email: croatia@mofa.go.kr
- 홈페이지: <http://overseas.mofa.go.kr/hr-ko/index.do>

2. 현지 날씨

- 한국의 사계절과 매우 유사하나 여름에 건조하고, 겨울에 습한 특징을 보임.
- 여름 평균 기온 : 최저 15°C, 최고 26°C
겨울 평균 기온 : 최저 -3°C, 최고 7°C

3. 간단한 현지회화

- 아침 인사 : Dobro Jutro 도브로 유뜨로
- 낮 인사 : Dobar Dan 도바르 단
- 저녁 인사 : Dobro Vecer 도브로 베체
- 고맙습니다 : Hvala 흐발라
- 네/아니요 : Da 다/ Ne 네
- 얼마입니까? : Koliko Kosta 콜리꼬 코슈타?
- Please, (Excuse me!) : Molim Vas 몰림 바스
- 좋습니다 : Dobro 도브로
- 미안합니다 : Oprostite 오쁘로스티테
- 헤어질 때 인사 : Dobidjenja 도비제냐

4. 체류 시 유용한 정보

- 긴급상황 시 연락번호 +385(국가번호)
 - 긴급상황신고 및 구조요청(112)
 - 경찰(192), 화재(193), 응급의료 및 구급차(194), 도로교통사고(1987)
- 젊은 층과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나 영어간판, 영어안내문 등은 많지 않음.
 - 중장년층의 경우, 영어 소통 불가능한 경우도 많음.
- 현지 교민은 대사관, 코트라, 삼성법인, 유학생 등을 포함 약 142명
- 한국식당과 한국식품점 운영 중

상호	주소	연락처	비고
크로케이(Cro.K)	Pod Zidom 4	(385-1) 4819-525	한식당
엄마식당(Omma)	Koranska ul 1A	(385-99) 467 0701	한식당
한인마트(Korean Mart)	Širolina ul. 8	-	한국식품점

- 치안은 매우 양호, 관광객 상대 범죄는 거의 없지만 소매치기는 항상 주의 필요
- 환전 * 2023년 1월 1일부로 유로화 사용, 기존 화폐 쿠나는 2013년 말까지만 사용 가능
 - 은행 및 시내 환전소에서 가능. 은행과 수수료 차이 미비 * 1달러 = 0.93유로(2024.1)
 - 현지 환전소 간판명은 'MJENJACNICA' *일요일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음
- 신용카드
 -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널리 통용. 아멕스와 디스커버리 카드는 일부 거절
- 약국 : 녹색 십자가와 함께 Ljekarna라고 표기
- 대중교통
 - 트램(전차) : 30분이하 1회 요금은 0.53유로, 60분은 0.93유로, 90분은 1.33유로, 해당 시간내에서 버스를 포함한 환승 가능. 정류장 주변 신문가판대(Tisak) 또는 트램(전차) 내 운전기사로부터도 시간당 각각 0.8유로/1.33유로/1.99유로 구매
 - 택시이용 : 우버* 이용이 가장 편리, 호텔 앞이나 거리에서 빈 택시에 바로 탑승가능.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그레브 시내 기준 기본요금은 2유로이며 1km당 0.8유로씩 가산 * 한국 신용카드 등록 후 사용가능

- 식수 : 현지에서는 수도물을 직접 마시지만 석회석이 함유로 가급적 생수 권장
- 국제전화사용
 - 한국으로 전화 시 : 00-82(국가번호)-지역번호-전화번호
- 한국과의 시차
 - GMT+1로 한국보다 8시간 늦음(1월~3월/11월~12월)
 - 서머타임(3월 ~10월 마지막 주 일요일)에는 7시간 늦음
 - * 한국 오후 3시 ↔ 크로아티아 오전 8시
- 핸드폰
 - T-Mobile, A1 Croatia, Tele2 등 3개사가 시장을 장악. 이동 통신사 매장 또는 가판대(Tisak)에서 기간별(1일, 1주일, 1달) 선불 SIM 카드 구입 가능
 - 통신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0유로 내외, 도서 산간지역 방문 시에는 가급적 메이저 통신사인 T-Mobil 이나 A1를 추천
- 인터넷
 - 속도는 한국에 비하면 느리지만 안정적인 편임. 많은 시내 음식점 및 카페 등 공공 장소에서 무선 인터넷 이용 가능.
- 쇼핑
 - 시내 및 시 외곽에 백화점, 쇼핑몰이 있어 필요 물품은 불편함 없이 구매 가능
 - 개점시간: 통상 월-금 10:00~20:00(토요일에는 오후 1시 또는 3시에 폐점)

5. 관광 정보

- 중남부 유럽의 대표적 관광지
 -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는 플리트비체, 스플리트, 두브로브닉 등
 - 1979년 유네스코는 두브로브닉 올드타운, 스플리트 디오클레티안 궁전, 호수 공원으로 유명한 플리트비체 공원을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등재
- 자그레브 관광지로는 자그레브 대성당, 성 마르코 교회, 반 엘라치치 광장

	<p><엘라치치 광장 > 자그레브</p> <p>자그레브 관광의 시작 포인트, 반 요시프 엘라치치* 동상이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. *1848년 오스트리아 제국 육군 중장, 크로아티아왕국의 총독으로 임명. 1848년 헝가리 혁명을 진압</p>
	<p><자그레브 대성당> 자그레브</p> <p>12세기경 건축, 1242년 몽골 침입, 1880년 지진이 발생. 108m의 쌍둥이 첨탑은 19세기 후반 네오고딕 양식, 전반적인 분위기는 바로크 양식</p>
	<p><성 마르코 교회> 자그레브</p> <p>교회의 지붕이 화려한 모자이크. 휘장 왼쪽은 크로아티아, 오른쪽은 자그레브를 상징</p> <p>크로아티아의 NATO 가입을 앞두고 2008년 5월, 크로아티아 최초로 미국 대통령(부시)이 방문 및 연설</p>
	<p><플리트비체> 자그레브에서 131km(2시간)</p> <p>194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약 3만 ha의 넓이의 호수공원. 총 16개의 호수가 층층 계단, 각 호수는 약 90개의 폭포 1,200여 종의 희귀식물들이 자생. 7세기부터 사람이 거주,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15세기경</p>
	<p><자다르> 287km(3시간)</p> <p>중세 시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구 도심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. 히치콕 감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라 찬사 했고 유명한 건축가였던 니콜라 바시츠의 바다 오르간과 태양의 인사 작품으로도 유명하다.</p>
	<p><스플리트> 409km(4시간)</p> <p>제 2도시(인구 약 20만 명)로 중부 달마시아 지역의 경제, 행정 중심지 로마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궁전을 건립, 총 4개 대문, 16개의 타워로 축성. 로마군 캠프와 유사</p>
	<p><두브로브니크> 606km(6시간)</p> <p>"아드리아해의 진주"로 불리며 13세기경 건설된 중세도시. 베네치아의 경쟁자로서 상업 도시로 발전. UNESCO 등재. 1,940미터 길이의 성벽. 13세기에 디자인, 17세기에 완성</p>

해외출장 가이드



www.kotra.or.kr